



#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 보고

## □ 견학 개요

- ❖ 기 간 : 2014. 3. 27(목). ~ 4. 2(수). 《5박 7일》
- ❖ 대상국가 : 태국, 미얀마
- ❖ 견학인원 : 총 17명(주민감시단 14, 공단 3)
- ❖ 내 용 : 봉안당, 묘지 등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전반

## □ 주요 내용

- ❖ 국외 국가의 봉안당·묘지 등 관리 운영실태 견학
  - ▷ 장사시설 방문 : 2개국(태국, 미얀마 2개소)
- ❖ 장사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현지 문화탐방

#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 보고

효율적인 영락공원 관리운영 도모를 위하여 실시한 2014년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국외 선진 장사시설 견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2014년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선진장사시설 견학계획 보고(2014.03.05.)와 관련임 -

## I. 견학 현황

### □ 견학 개요

- 기 간 : 2014. 3. 27(목). ~ 4. 2(수). 《5박 7일》
- 대상국가 : 태국, 미얀마
- 견학인원 : 17명(주민감시단 14, 공단 3)
- 견학내용 : 봉안당·묘지 등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전반

### □ 견학 동기 및 배경

- 영락공원 건립·운영과 관련, 지역주민의 선진장사시설 연수를 통해 영락공원 건립의 당위성과 운영 필요성 제고
- 방문국의 장사시설 관련 자료를 통해 세계 장사문화 흐름과 선진장사문화 벤치마킹을 통한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에 일조
- 2004년부터 지속적인 해외 장사문화 연수를 통해 영락공원의 선진장사문화 노하우 축적 및 발전방향 제시

### □ 견학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방문	1일 (3.27. 목)	· 김해공항(08:40) ⇒ 방콕 쭈와나폼 국제공항(12:30) ⇒ 왕궁 에머랄드사원, 수상가옥, 새벽사원 등	
	2일 (3.28. 금)	· 태국 장례문화(왓푸카오명납골당)시찰 ⇒ 미얀마 양곤 도착(14:00)	★장사시설방문
	3일 (3.29. 토)	· 양곤 ⇒ 바간(국내선 이동) - 화장장 시찰, 바간 성지순례, 쉐산도 파고다, 마차투어 등	★장사시설방문
일정	4일 (3.30. 일)	· 바간 ⇒ 만달레이 ⇒ 땡군 ⇒ 만달레이 - 불교 유적지 순례, 마하무니 파고다, 빠다웅족 민가 등	
	5일 (3.31. 월)	· 만달레이 ⇒ 헤호 - 인레호수, 팡도우 파고다, 빠다웅족 민가 등	
	6일 (4. 1. 화)	· 헤호 ⇒ 양곤 ⇒ 방콕 - 로카찬다 파고다, 아웅산기념탑, 쉐다곤 파고다관광 등	
	7일 (4. 2. 수)	· 방콕 국제공항 출발(00:15) ⇒ 부산김해 국제공항 도착(07:20)	◆영락공원 해산 (10:00)

## Ⅱ. 견학 내용

### □ 국외 국가의 봉안당·묘지 등 관리 운영 실태 견학

- 일 시 : 2014. 3. 28. / 3. 29.(2일)
- 장 소 : 2개소(태국 1개소, 미얀마 1개소)
  - 태 국 : 왓푸카오명 납골당
  - 미얀마 : 묘지 및 화장장(YAWEL,NORTH DAGON)
- 견학 내용 : 봉안당·묘지 등 장사 시설 및 문화 전반

### □ 국외 국가의 현지 생활상 등 다양한 문화 탐방

- 태국 현지 문화탐방 : 왕궁에메랄드사원, 강변수상가옥, 새벽사원 등
- 미얀마 현지 문화탐방 : 마하시수도원, 술래파고다, 바간성지순례, 쉐지곤 파고다, 부파야 파고다, 쉐산도 파고다, 마하간다용수도원, 인따족 수상마을, 빠다웅 족 민가, 로가찬다 파고다, 쉐다곤 파고다, 황금대탑, 아웅산 기념탑 현장 탐방 등

### □ 기대 효과

- 방문국의 장사문화 실태를 통해 장사문화 발전방향 모색

### Ⅲ. 견학국 장사제도

#### □ 태 국

○ 태국의 국토 면적은 51만 4,000km<sup>2</sup>로서 한반도의 약 2.3배에 달하며,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6,388만 명이다. 태국의 인구 증가율은 0.6%이며, 평균 수명은 남 70세, 여 75세이고, 남녀 성비는 98 대 100이다. 태국의 민족 분포는 타이족 85%, 화교 12%, 말레이족 2%, 기타 1%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 분포는 불교 94.6%, 이슬람교 4.6%, 기독교 0.7%, 기타 0.1%이다. 태국은 타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맹률은 6%이다. 태국의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3계절로 대별되는데, 3월~5월은 고온이고, 6월~10월은 우기이며, 11월~2월은 비교적 저온이다. 연평균 기온은 28℃이고, 최고 기온은 32.5℃이며, 최저 기온은 23.7℃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1,600mm이고, 연평균 습도는 79%이고, 최고 습도는 94%이며, 최저 습도는 60%이다. 태국은 한국과의 시차가 -2시간이다. 태국의 화폐 단위는 바트(Baht)인데, 1바트는 100사탕(Satang)이고, 2011년 평균 기준으로 미국달러로 1달러는 30.49바트이다.

#### ○ 태국의 장례문화

▶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도이기 때문에 장례도 거의가 사원(寺院)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원경내(寺院境內)에 있는 불탑형으로 된 옥내 화장장이나 야회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 왕족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스님들의 장례는 사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의 날짜를 선택하여 거행되고 있다.

화장한 유해는 향아리에 담아 사원 안에 있는 탑에 납골한다. 중국계 이외에는 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있는 불단(佛壇)에 봉안하든가 벽지에 있는 묘지에 납골하기도 한다.

특히 북부의 산악지방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은 이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탓으로 묘지에는 관심이 없고 유체를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거나 풍장(風葬)의 일종으로 유체를 높은 나무위에 얹어두는 소위 폭장(曝葬)의 형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그곳의 일부 부족인 메오족은 유체를 나무막대기로 만든 단가에 놓혀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관습도 있

다. 태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가까운 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시신은 가족들의 손으로 수시하고 입관되어 그날의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상가나 사원에서 스님을 초빙하여 법요(法要) 의식을 거행한다. 시신에는 사망자가 평소에 입었던 깨끗한 옷을 입히고 관은 사원에 의뢰하면 곧바로 수배해주고 있다. 장례는 사원에서 거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인 할 때에는 고인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관 앞에서 상주가 단 한번으로 깨트리는데 관습이 있다.

사원 안에 있는 화장장에서는 관을 오른쪽으로 세 번 돌려서 유족들의 서열에 따라서 화장(火葬)대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놓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에 양초, 향, 향로, 유골함을 가지고 화장장으로 다시 가서 스님과 함께 화장된 것을 수골(收骨)하여 유해는 사원 안에 있는 납골당에 봉안 하던가 흐르는 냇물이나 바닷물에 흘려보낸다. 중국계의 불교도들은 독립된 묘지를 조성해두고 묘비에도 한자(漢字)와 타이의 글자를 함께한 고인의 이름 사망 년 월일을 새겨 놓고 매년 4월 5일의 청명절(淸明節)에는 모든 가족들이 제물을 차려 놓고 성묘를 하고있다. 방콕시에는 화교계의 사회복지단체인 보덕당(報德堂)이 있어서 천재나 인신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인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긴급구호나 장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태국 견학 현장 사진

		
<p>왕궁 에메랄드사원</p>	<p>에메랄드사원 앞 기념</p>	<p>왕궁내 전경</p>
		
<p>1층 총기박물관, 2층 연회장, 3층 왕족 납골당</p>	<p>왕족 납골당 앞 기념</p>	<p>왕족 시신안치 조문하는 건물</p>
		
<p>수상 버스에서 바라본 새벽사원</p>	<p>따브리야 강변 수상가옥</p>	<p>왓푸카오명 납골당 정문</p>
		
<p>왓푸카오명 화장동 전경</p>	<p>왓푸카오명 장례운구 차량</p>	<p>왓푸카오명 납골당</p>

## □ 미얀마

-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북서쪽에 위치하며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이 나 북부지방은 아열대성 기후이다. 면적은 676,578km<sup>2</sup>로 한반도의3배다. 미얀마의 인구는 2010년 기준 5838만 명이고, 전체 인구의 89.4%가 불교도이다. 미얀마 국민의 70%는 버마족이고, 25%는 카렌, 카친 등의 소수민족이고, 나머지 5%는 중국계와 인도계이다.

수도는 네피도(Naypyidaw)이며, 9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2005년 11월 이전에는 양곤(Yangon)이 수도였다. 2005년 11월 6일부터 미얀마 중부 지역에 있는 네피도로 행정수도 이전을 개시해 2006년 2월 중순 무렵에 일단락되었다. 주요 도시로는 양곤 디비전(Yangon Division: 약 685만 명), 만달레이 디비전(Mandalay Division: 약 800만 명), 에야와디 디비전(Ayeyarwaddy Division: 약 785만), 바고(Bago Division: 약 580만 명), 샨 주(Shan State: 약 553만 명), 몬 주(Mon State: 약 30만 명) 등이 있다.

2010년 기준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은 3.1%, 인플레이션율은 10.9%, 외환보유고는 37억 6000만 달러, 교역액은 131억 2000만 달러(수입 43억 달러, 수출 88억 2000만 달러), 외채는 73억 달러이다. 주요 자원은 쌀, 티크, 원유, 천연가스, 구리, 납, 아연, 텅스텐, 다이아몬드, 루비 등으로 산림, 광물, 농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농업 위주의 산업 정책 추진을 추진해 인프라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이 부족하다. 게다가 행정 규제가 심하고 제도 부족 등으로 경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의 표준시는 한국 표준시보다 2시간 30분 느리다.

- 미얀마의 장례문화

▶ 미얀마의 장례문화도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미얀마는 각 종족마다 관습이 다르기에 버마족의 장례 문화를 살펴 보면 먼저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시신을 목욕시켜주고, 예쁘게 화장해주고 신옷으로 갈아입혀준다.(신옷은 고인의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사용 한다)

시신을 응접실에 편하게 눕혀둔 후 첫날엔 스님들을 모시는데 시신이 놓은 옆자리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승복, 물건, 돈 등을 바치면서 스님의 설법을 듣는다. 설법을 들으면서 고인의 명복도 빌고, 가족들은 슬픔을 조금 덜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사안”이라는 전통악기를 치면서 설법을 한다고 한다.

시신은 보통 이틀이나 삼일정도 두었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멀리서 찾아오는 중요한 친척들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3일까지는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스님은 일년까지 놓아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장례식에 온 손님들에게는 음식을 대접하며 손님들은 정성껏 돈을 내고 시신을 보면서 울고 절하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어도 죽은 사람을 보면서 금생의 끝은 좋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한다. 밤에는 가족, 친척, 친구, 친한사람, 이웃이 함께 모여 밤새도록 지킨다. 두 번째 날에도 오전에는 방문한 손님들을 대접하고 오후에는 시신을 관에 넣어 상여에 갖다 놓는다.













(상여는 부잣집은 크고 훌륭하게 꾸미고 가난한 집은 작게 꾸민다.)

오후 2시-4시 사이에 묘지로 떠나는데 맨앞에는 꽃병을 든 사람, “제지”라고 부르는 종을 메고 가는 두 사람, 스님들에게 바칠 물건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여자들, 스님들, 같은 마을 사람들, 이웃마을 사람들 순서대로 줄을 서서 가는데, 그 뒤에는 상여, 가족들, 전통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악기들을 치면서 시조를 읽으면서 묘지로 간다.

묘지에 도착하면 스님의 설법을 들은 후 상여에서 관을 내려놓는데 매장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땅을 파고 묻으며, 화장할 경우에는 일단 화장한 후 뼈를 모아서 다시 정리함(나무로 만든)에 넣어서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준다. 대부분 부자들은 화장한 후 매장을 하며 가난한 이들은 매장을 한다고 한다. 그후 고인이 죽은날이 돌아오면 내생에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스님들을 모시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잘 대접한다.



# 미얀마 견학 현장 사진

		
<p>미얀마 불교문화의 상징 쉐다곤 황금대탑</p>	<p>바간 화장장 전경</p>	<p>화장장 앞 기념</p>
		
<p>화장장 내 장례예식</p>	<p>바간 묘지 앞 기념</p>	<p>마하간다용 수도원 탁발 공양식</p>
		
<p>바간에서 가장 오래된 탑 부파야 파고다</p>	<p>바간 양우 재래시장</p>	<p>빠다웅 족 민가 방문 기념</p>
		
<p>로카찬다 파고다 불상 (세계최대 옥 600톤으로 만든 불상)</p>	<p>로카찬다 파고다 앞 기념</p>	<p>아웅산 국립묘소 기념탑</p>

## IV. 장사시설 견학 시사점

- 동남아시아의 태국, 미얀마는 불교가 사람들의 사상 및 행동 면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 불교 없이 이들의 정치와 문화 자체를 논하는 것이 불가능 할 정도여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새삼 놀랐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08. 3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자연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 부산의 경우 2008년 말 기준 화장율이 79.9%에 이르는 등 화장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영락공원에서는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2009년부터 최초 도입되는 장사시설 KS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태국의 경우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해 있거나, 도심에 사원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었으며, 기피시설이란 느낌이 없이 가까운 곳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 매장이 미얀마의 장례식에서 보편화되어 있지만, 화장도 정글 지역에서 널리 행하여져 있다. 최근에는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미얀마어로 ‘마땡조디’라 불리는 이 화장이 행하여진다고 함.
- 이런 선진장사문화 정착과 관련하여 국외의 장사시설 현황을 견학함으로써 우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우리와는 문화의 차이 등이 있으나, 우리의 장사문화도 선진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